

사회

비리 관련 학교장은 해임·본청 직원엔 정직·감봉

광주교육청 '고무줄 징계' 논란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학교장 등이 광주시교육청의 고강도 사정기준에 따라 해임돼온 것과 달리, 인사비리를 주도한 본청 직원들에게는 신분유지가 가능한 징계 2개월, 감봉 1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시교육청 전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 이모(56)씨에 대해 징계 2개월을 결정했다. 또 전 인사과 직원 이모(42)씨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로 징계의결 했다.

정은 "이미 예고됐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 교육감은 최근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대해 중징계 요구하겠다"고 밝혀, 단초를 제공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앞서 채용 비리관련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자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사실상 영향을 미쳤다는 학부모단체 등의 지적을 받았다.

었던 점, 탄원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은 "탄원서를 냈다는 것은 교육감의 이중성을 보는 명백한 일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어이없는 처사"라고 지적했었다.

한편, 과거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징계위의 '정직' 결정이 약하다며 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심을 요구, 결국 해임한 사례가 있어 장 교육감의 재심요구 등 후속 결정이 주목된다.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의 한 관계자는 "결국 교육감의 탄원서가 무거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 징계에서도 보호해 줬다"며 "징계 2개월 뒤에는 다시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이 무슨 중징계냐"고 말했다.

오늘 날씨 감기조심 일교차 크니 건강관리 유의 하세요.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군산, 남원, 옥산도.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광주 사학법인 부담금 낮은 납입률 지방교육 재정 악화 부추긴다

시의회 윤봉근 의원 지적.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입률이 갈수록 저조해 일선 지방교육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사립학교법인은 사립대학교 법인과 달리 구조적으로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정부는 막대한 미납분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등을 통해 시 교육청에서 대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다.



광주 구도심 재생을 위한 기업·예술가·시민참여형 '생생텃밭(Urban Farm)가꾸기' 협약식. 문화기획자와 예술가, 시민 참여형 문화중심도시 조성 프로젝트인 '생생텃밭' 협약식이 29일 광주시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이혼때 양육 등 전문가 상담 받아야

다음 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 사항, 이혼 이후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 도심 '생생텃밭' 만든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 폐철로 부지에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텃밭인 '생생텃밭(Urban Farm)'이 조성된다.

생생텃밭은 시민들이 폐철로 부지를 푸른길로 가꾼 광주의 대표적 생태공간인 '푸른길 공원' 인근 광주시 동구 동명동 일대 약 200m 길에 예술과 친환경 식물이 조화를 이루는 100여개의 포트(화분)형 텃밭을 조성, 시민들이 가꿔나가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은 물론 다양한 문화기획자와 예술인이 재능 기부 형태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환상제주 여행사 파트너 모집.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호텔(9월 24일~11월 6일 출발) 1인 444,000원부터 ~. 롯데호텔(9월 24일~11월 6일 출발) 1인 492,000원부터 ~. 해비치호텔(9월 24일~11월 6일 출발) 1인 474,000원부터 ~.